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과 언어상호작용¹⁾

강 창 숙

충북대학교

I. 연구의 배경 : 자기장학으로서의 수업관찰과 분석

교사가 수업을 관찰, 분석, 반성하는 것은 수업전문성 함양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관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성적으로 실천하는 ‘자기장학’은 수업 경험이 풍부한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 경험이 거의 없는 예비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자기장학은 교사로서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장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은휘, 2003; 김경현, 2004; 남운진·채정현, 2008; 이윤식·강호경, 2007)는 실제 수업을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장학은 교사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수업을 녹음 또는 녹화한 후 수업을 관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기술 향상을 꾀하려는 교사의 자발적이고 반성적인 실천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수업관찰은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수업과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수업을 분석·진단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수업관찰자는 미리 준비된 관찰도구와 방법 및 절차에 의거하여 교사와 학생 각각의 행동과 상호작용, 수업 전개 양태, 자료의 활용 등 수업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수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며, 교사의 교수행위 변화를 계획적·공식적·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육과정을 잘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주삼환 외, 1999).

Flanders(1970, 이하 플랜더스)는 과학적인 수업형태 분석의 관점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수업능력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행위의 조절을 돕기 위해 수업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를 객관적,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행위를 ‘수업분석’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수업분석은 교사로 하여금 학습자 학습에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업능력의 향상이나 수업행동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관찰과 수업분석은 자기장학의 기본 도구가 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반성적으로 실천될 때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모든 수업은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교실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다. 수업의 관점이 개인의 사고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관계적 관점으로 전환, 확대되었고,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1) 본 연구는 ‘사회과교육연구’ 21권 3호에 게재예정 논문의 일부 내용임

의 상호작용은 교수-학습 과정의 맥박소리(Koehler & Prior, 1993; 신준식, 2007에서 재인용)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인지적 갈등이나 의문을 야기하고, 이를 반성하도록 하며, 사고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신준식, 2007, 19).

선행연구에서는 오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녹화를 통한 피드백이 전통적인 지도교수의 피드백보다 예비교사의 언어상호작용의 ‘비지시적 교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Leonard, et al., 1971). 초임교사의 자기장학이 교수기술 향상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경현, 2004), 예비교사의 수업에서 ‘언어상호작용’에 대한 수업분석의 피드백이 이루어진 후 교사-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교사와 학생 각각의 발화 빈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인, 2012).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자기수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꾸준히 제공될 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명의 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자기 수업(수업실습 전의 모의수업과 교육실습에서 이루어진 수업실습)에서 나타나는 언어상호작용의 구체적인 현상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관찰, 분석하고 반성함을 통해, ‘자기장학’을 연습하고, 사회과 수업실연 능력 함양의 실천적 의미를 경험케 한다. 동시에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의 수업행위에서 나타나는 언어상호작용의 특성을 관찰, 분석, 해석하고, 이를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근거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과 AF 분석의 특징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상호작용에 대한 형태적인 분석법으로 널리 소개되고 활용되는 것은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법(Flanders’ verbal interaction analysis system)’이다.²⁾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은 수업의 주요 변인인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전에 정해진 관찰행동을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누적 기록하고 분석하는 객관적 분석법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수업분석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통계처리를 위한 교사 및 관찰자의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많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관찰과 측정 과정의 불편이 제기되어 이 분석법의 사용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변영계·김경현, 2005).

근래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김경현, 2004; 安藤 久夫 외, 2012)되면서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과 관련하여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을 활용한 연구(김경현, 2004; 김용하, 2008; 백제은, 2009; 허균, 2009)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기술 개선은 물론 예비교사의 교실 수업 능력 함양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EASY 분석 프로그램 ver 3.54(베타버전)’에서 제공하는 ‘Advanced Flanders’

2) 수업활동의 형태적인 분석은 교사와 학생의 언어상호작용분석(verbal interaction analysis), 비언어적상호작용분석(non-verbal interaction analysis), 작업분석(work analysis)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김종서·김영찬, 1983). 이중 널리 소개된 것은 ‘플랜더스 상호작용분석법’으로, 교사의 교수행위로 드러나는 수업기술 향상과 관련된 연구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 분석법은 교사와 학생의 언어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것으로, 1960년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플랜더스 교수가 교실수업 관찰을 토대로 한 논문에서 비롯되었다(변영계·김경현, 2011).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분석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가 그 내용을 강의하고 설명하는 설명식 수업 분석에 적합하다.

Interaction Analysis(이하 AF 분석)' 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연구대상 예비교사의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언어상호작용' 을 관찰, 분석하였다.³⁾

본 연구의 과정에서 수업관찰자인 예비교사들은 자기수업에서 나타나는 언어상호작용의 특징을 표 1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필요한 준칙들을 반복적으로 숙지한 후에, AF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연습 프로그램(AF 분석 맛보기, AF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등)으로 반복, 연습한 후에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플랜더스의 분석법은 수업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 크게 교사 발언(Teacher Talk), 학생 발언(Student Talk), 침묵(Silence)의 3개 범주로 구분되고 이들은 10개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들 범주와 항목은 본래 플랜더스(1965)가 개발한 분석도구에서 교사 발언 항목 7-9개와 학생 발언 항목 2-3개를 수정한 것이다. 10가지 분류 항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Bondi & Ober, 1969, 5-8; Flanders, 1970; Malamah-Thomas, 1991; 이인, 2012를 참고로 구성).⁴⁾ 이들 항목들은 상호배타적이며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Lambert et al., 1965, 222)고 할 수 있다. 플랜더스의 교실에서의 언어적인 행위를 위한 기술 범주로 시작된 '상호작용' 분석 전통의 토대는 교실과 학습과정을 드러내줄 수 있는 교실언어를 살펴보는 데 있다. 언어사용은 관찰 가능한 것이지만, 학습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말하기는 가르치는 것과 거의 동일시 되었다. 이런 전통에서 보면 수백 개의 교실 관찰 설명문들이 있다. 이들 모두는 본질적으로 플랜더스의 원래 범주를 응용, 확장 또는 단순화시킨 것들이다(Malamah-Thomas, 1991).

<표 II-1> 플랜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 항목과 언어적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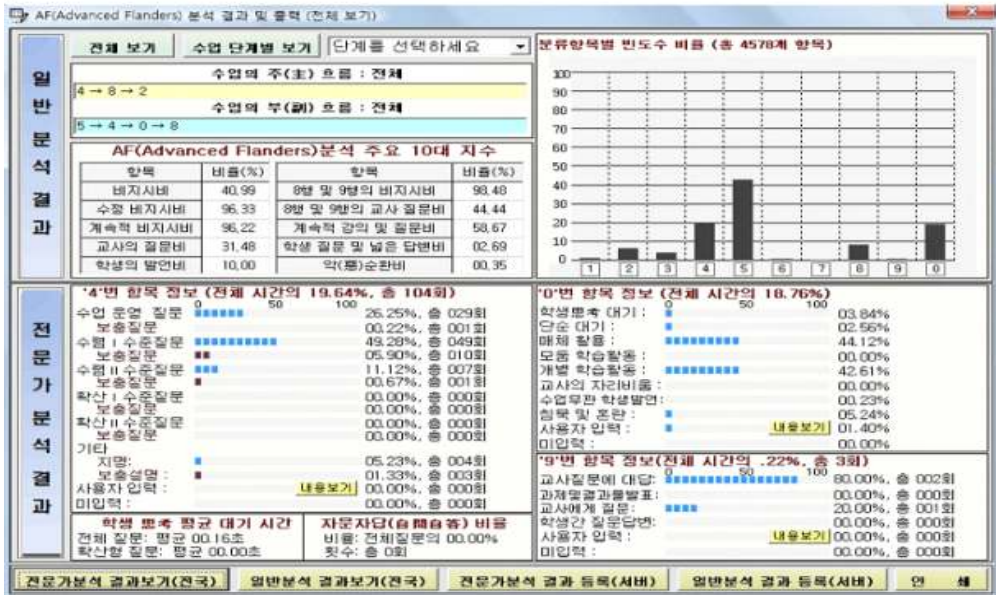
항목		언어적 행동	
교사의 발언 (Teacher Talk)	비지시적 (Indirect)	① 감정의 수용 (Accepts feelings)	위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생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명백히 한다. 감정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학생의 감정을 예측하고 회상하는 것도 포함한다.
	② 칭찬, 격려 (Praises or encourages)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한다. 학생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긴장을 풀기 위한 농담도 포함한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계속해' 라고 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학생의 아이디어를 수용 하거나 사용	학생의 말을 인정하고 그것을 명백히 한다. 학생들이 말한 생각이 나 의견을 도와주거나 개발하게 한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말을	

3) AF 분석은 기존의 플랜더스 분석에서는 18개의 준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5개의 분류 준칙에 의거하여 자체 개발한 AF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실용적인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 언어분석에 있어 보다 향상된 질적 정보(예를 들면, 교사 질문의 유형과 수준, 학생 발언의 경향, 언어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의 수업 상황 등)와 다양한 측면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관찰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에서는 VER 3.54 bet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http://www.edusugar.com/html/sub04_01.html). 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 운영자인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김경현 교수에게 있으며, 본 연구자는 두 차례의 전화 통화(2012. 11. 13, 2013. 10. 11)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연구 결과의 활용(논문 발표)을 허락 받았다.

4) 마지막 ⑩번은 일시적인 중단, 침묵과 혼란 등으로 교사나 학생의 언어 중 어느 항목으로 구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침묵이나 혼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기타'로 구분하기도 한다. 플랜더스는 '학생의 발언'으로 구분하였고 ⑩번으로 명명하였으나, AF 분석에서는 효율적인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기타'로 구분하고 ⑩번으로 명명하였다.

		(Accepts or uses ideas of students)	기반으로 자기의 생각을 보충하는 행위는 제5항목으로 간주한다.
		④ 질문 (Asks questions)	학생이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교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내용이나 절차에 대하여 질문한다.
	지시적 (Direct)	⑤ 강의 (Lectures)	교사가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말한다. 교사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설명한다.
		⑥ 지시 (Gives directions)	학생이 복종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 지휘, 명령을 한다. 학생에게 주의집중이나 벌을 줄 의도로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교사의 언어이다.
		⑦ 학생을 비평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정당화(Criticizes student(s) or justifies authority)	학생의 좋지 못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사가 비평적인 말을 한다. 학생의 대답을 독단적으로 정정한다.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설명하거나 교사의 극단적인 자기자랑도 포함된다.
학생의 발언 (Student Talk)	⑧ 단순 반응적인 말 (Teacher-initiated student response)	교사가 유도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단순하게 답변한다. 학생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자유가 제한된다. 교사가 학생의 설명을 유도하거나 이끌어낸다.	
	⑨ 주도적인 말 (Student-Initiated talk)	학생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교사의 유도에 의한 반응이지만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 이유 등을 말하는 경우이다.	
기타	⑩ 침묵이나 혼란 (Silence or confusion)	머뭇거리거나 짧은 침묵 등과 같이 관찰자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플랜더스는 수업형태를 크게 지시적 경향(directive influence)과 비지시적 경향(indirective influence)으로 구분하였다. 교사가 반응적 논평을 취한 경우(①, ②, ③ 카테고리)는 ‘비지시적 경향’의 교수 수업형태로, 교사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도한 경우(⑤, ⑥, ⑦ 카테고리)는 ‘지시적 경향’의 수업형태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질문(카테고리 ④)은 지시적인 것도 비지시적인 것도 아닌 중립적 형태로 판단한다. 지시적 경향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지배적·전제적·배제적·제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지시적 경향의 수업은 학생 중심으로 통합적·민주적·포괄적·허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즉, 플랜더스는 교실 수업의 분위기가 교사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의 언어작용은 바로 수업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을 언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Leonard, et al., 1971; 김용하, 2008, 14).



<그림 II-1> AF 분석 결과(전체보기)의 사례

이러한 행렬표의 영역들이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행렬표의 빈도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는 ‘비지시비’, ‘수정 비지시비’, ‘8행 및 9행의 비지시비’, ‘악순환비’ 등이다. AF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지수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그림 II-1), 이들 지수와 지수 산출 내용의 대략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Lambert et al., 1965; Bondi, et al., 1969; 변영계·김경현, 2011을 참고로 구성).

<표 II-2> 플랜더스 언어상호작용 분석의 지수 산출

지수	지수 산출
비지시비	비지시비(indirect/direct ratio)는 학생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학생을 칭찬, 격려하는 등 어느 정도 비지시적인 수업을 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교사의 언어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일 때 비지시적인 교사이거나 비지시적인 경향의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수정 비지시비	수정비지시비(revised indirect/direct ratio)는 비지시비의 계산 과정에서 항목 ④(교사의 질문)과 ⑤(교사의 강의)를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외한 수치로 산출한 지수이다. 좀더 정확한 비지시적 정도를 알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역시 50% 이상일 때 비지시적 경향의 수업이라 할 수 있다.
8행 및 9행의 비지시비	행렬표에서 8행 및 9행의 비지시비(revised indirect/direct ratio row 8 and 9)는 학생의 발언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지수이다. 긍정적, 격려적, 허용적으로 반응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시적, 비평적으로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지수도 50% 이상일 때 비지시적 경향의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악(惡)순환비	악순환비(vicious circle ratio)는 교사의 지시적 발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야단침의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좋으며 적절한 지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5%를 기준으로 지시적 경향을 판단한다.
계속적 비지시비	교사의 비지시적인 말의 계속성을 의미하며, 계속적 비지시비가 높으면 학생의 학업 성적이나 태도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A교사가 B교사보다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71% 이상인 경우를 상대적으로 비지시적 경향의 수업으로 간주한다.
교사의 질문비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아보는 지수이다. 즉, 교사의 강의와 질문 중에서 질문이 차지하는 비율($\frac{4}{4+5}$)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20% 이상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의 발언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한 시간 비율 중, 학생이 발언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교사의 말에 대한 학생의 말($\frac{8+9}{1\sim10}$ 의 합)의 비율로, 보통 15% 이상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8행 및 9행의 교사질문비	학생의 발언(8과 9)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질문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제시된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39% 이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사질문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적 강의 및 질문비	교사의 강의와 질문의 계속성 정도를 나타낸다. 제시된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48% 이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사의 계속적 강의 및 질문비가 높은 수업으로 간주한다.
학생 질문 및 넓은 답변비	학생의 전체 발언 중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발언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보통 30% 이상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III.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언어상호작용의 형태와 특성

1. 수업실습에서 나타나는 수업언어의 형태와 특징

분석 대상 수업에서 나타난 수업언어의 항목별 빈도수의 백분율 평균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전체적으로 수업시간 50분 중 교사의 발언이 약 35분(70.55%) 동안 이루어졌고, 학생의 발언은 단지 5분 정도(10.46%) 이루어졌으며 침묵 및 혼란이 10분 정도(18.99%) 이루어졌다. 수업시간의 4/5(81.01%)는 누군가 말을 하는 언어활동이 이루어졌고, 그중의 4.4/5(87%)는 교사가 말하고 있었다. 교사의 발언의 3.3/5(64.95%)는 지시적 발언이었고, 지시적 발언의 약 4.7/5(93.2%)는 교사의 ‘강의’였다.

<표 III-1> 항목별 빈도수의 백분율(%)

항목	수업1	수업2	수업3	수업4	수업5	수업6	평균	SD	χ^2
----	-----	-----	-----	-----	-----	-----	----	----	----------

교사의 발언 (70.55)	비지시적 (24.73)	①	0.68	0.12	0.00	0.00	0.07	0.40	0.21	0.3	1.8
		②	5.99	0.77	3.92	1.49	1.00	0.05	2.20	2.3	11.8*
		③	3.67	4.39	4.01	1.97	5.30	2.54	3.65	1.2	2.0
		④	19.64	20.40	21.91	24.91	18.39	6.78	18.67	6.2	10.4
	지시적 (45.82)	⑤	42.75	47.25	23.42	40.26	36.12	69.42	43.20	15.2	26.7**
		⑥	0.39	1.67	7.95	1.63	2.16	0.80	2.43	2.8	15.9**
		⑦	0.00	0.89	0.00	0.00	0.00	0.25	0.19	0.4	3.4
학생의 발언 (10.46)	⑧	7.90	5.22	14.33	0.00	8.74	6.26	7.08	4.7	15.6**	
	⑨	0.22	1.29	1.57	15.45	1.35	0.37	3.38	5.9	52.2**	
기타(18.99)	⑩	18.76	18.00	22.89	14.29	26.87	13.13	18.99	5.2	7.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 : 0.01수준에서 유의; * : 0.05수준에서 유의, $\chi^2(df=5)$

분석 대상 수업에서 나타난 수업언어의 비중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강의(⑤)’가 전체 수업의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의 ‘침묵 및 혼란(⑩)’과 교사의 ‘질문(④)’이 각각 18.99%와 18.67%의 순으로 나타났다.⁵⁾ 학생의 ‘단순 반응적인 말(⑧)’은 전체 수업에서 약 7% 정도 이루어졌고, 교사가 학생의 ‘아이디어를 수용(③)’하거나 학생이 ‘주도적인 말(⑨)’을 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지시(⑥)’ 혹은 ‘칭찬, 격려(②)’를 한 경우는 3.65% ~ 2.2% 정도로 매우 적다. 학생의 ‘감정을 수용(①)’하거나 ‘비평 혹은 교사의 권위를 정당화(⑦)’하는 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계적 검증의 결과, 예비교사의 개인차는 교사의 ‘강의(⑤)’, 학생의 ‘주도적인 말(⑨)’, 학생의 ‘단순 반응적인 말(⑧)’, 교사의 ‘지시(⑥)’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이들 항목에 대한 통계치는 두드러지는 개인차도 반영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수업 동영상과 전사내용을 관찰한 결과 입력 오류의 문제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 대상 수업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실습에서 이루어진 수업이란 점을 고려하면, 항목 ⑥이나 ⑦과 같이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비평’하는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항목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항목 ⑦의 경우는 수업1·수업3·수업4·수업5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⑥의 경우는 수업3에서 그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분석 대상 수업들은 교사 중심의 강의와 질문이 주된 언어 행위로 교사-학생

5) 기타(⑩) 항목의 분석 결과(%)는 학생사고대기(3.31), 단순대기(4.62), 매체활용(35.11), 개별학습활동(31.11), 수업과 무관한 학생발언(0.62), 침묵 및 혼란(24.63), 사용자의 미입력(0.28)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활용, 개별학습활동, 침묵과 혼란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간 언어상호작용은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학생의 감정을 수용하거나 칭찬 격려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플랜더스(1970)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상호작용 중에서 전체의 2/3는 누군가(교사와 학생)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것의 2/3는 교사가 말하고 있고, 교사 발언의 2/3는 지시적인 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적인 수업에서는 2/3법칙을 깨트리고, 교사의 말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며, 지시적 발언의 비중도 줄여야 한다(김종서·김영찬, 1983, 119).

2. 수업실습에서 나타난 언어상호작용의 형태 : 교수활동의 주부형태

플랜더스의 상호작용 분석법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상호작용의 주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전형적이고 습관화된 교수활동이다. 즉, 카테고리 빈도에 따른 100칸 행렬표가 작성되면 수업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행동을 화살표로 연결시킨 주형태와 자주 나타나지는 않으나 주형태와 함께 상호작용의 본질과 방향을 암시하는 부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주형태나 부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모의수업과 교육실습 중에 이루어진 수업실습을 녹화하고 전사하여 AF 분석한 결과, 수업형태는 다음의 표 III-2와 같이 나타났다.

수업실습에서 이루어진 수업의 주형태는 대부분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단순 반응적으로 대답하면, 교사가 학생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학생을 칭찬, 격려하는 형태(4→8→3, 2)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상호작용이 순환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진행되는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수업4의 경우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형태(4→9)라는 점에서 좀 더 바람직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이야기나 아이디어 표현에 대한 교사의 칭찬, 격려(2)와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질문(4)이나 다른 학생(들)의 반응(8) 없이 교사의 강의와 질문(4→9→5→4)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순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III-2> 예비교사의 수업실습에서 나타난 수업형태

모의수업		수업실습				
수업	주형태 (부형태)	수업	주형태 (부형태)	수업단계별 주형태(부형태)		
				도입	전개	정리
모의수업1	4→1→2 (5→4→2)	수업1	4→8→2 (5→4→0→8)	4→8→2 (5→0→5→4)	4→8→2→4 (5→4→0→8)	4→8→2 (5→0→5→4)
모의수업2	5→4→0 (5→0→5)	수업2	4→8→3 (5→4→0→4)	4→8→3→4 (4→0→4)	4→8→3→5 (5→4→9)	4→0→5→0 (4→8→3)
모의수업3	5→4→0 (4→0→3)	수업3	4→8 (5→4→6→0)	4→8 (5→4→6→0)	4→8 (5→4→6→0)	4→8 (2→4)
모의수업4	5→4→5 (5→6→5)	수업4	4→9→5→4	4→0→4→9	4→9→4→5 (5→4)	4→0→4→9

모의수업5	5→4→8 (4→8→3)	수업5	4→8→3→4 (5→4→5→0)	4→8→3 (5→0→4→5)	4→8 (5→4→5→0)	4→8→3→4
모의수업6	5→4→8→5 (4→5→6→4)	수업6	4→8→3→5 (5→0→5)	4→8→3→5 (5→0→5→4)	4→8→3→5 (5→0→5)	4→8→5→7 (5→0→5→4)

이들 예비교사의 모의수업에서 나타난 수업의 주형태는 모의수업1을 제외하고, 모두 교사의 강의와 질문으로 시작되어 침묵과 혼란이나 학생의 단순 반응, 교사의 강의로 이어지는 형태(5→4→0, 8, 5)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주도적인 발언이나 아이디어 표현을 바탕으로 한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다. 수업실습의 수업4를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나타나는 부형태는 모의수업의 주형태와 비슷하다. 예비교사들은 교사의 강의와 질문으로 주도되는 수업 형태를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수업실습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부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작용주의 연구자들은 담론의 특징에 따라 의사소통의 유형을 질의-응답 유형(recitation), 깔때기 유형(funnel pattern), 초점 유형(focusing pattern)으로 나누었다(Wood, 1998, 169-170; 신준식, 2007에서 재인용). 질의-응답 유형은 전통적인 수업에서 자주 관찰되는 유형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teacher initiation), 학생은 그에 대해 반응하며(student replay), 학생의 반응을 교사가 평가하는(teacher evaluation)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IRE 유형' 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의사소통이 한 방향(univocal)으로만 이루어진다(신준식, 2007; 조영준·신항균, 2010).

수업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이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에 따라 수업에서 이루어진 언어상호작용을 특징지을 수 있다. 분석 대상의 수업은 대부분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방향적인 의사소통 즉, 교사의 질문(4)→학생의 단순한 반응(8)으로 이어지는 언어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적인 의사소통 즉, 교사의 질문(4)→폭넓은 반응(9)으로 이어지는 의사소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수업은 교사의 말하기가 주된 수업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보다는 전통적인 교사의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업실습에서 나타난 지시적 경향의 언어상호작용

플랜더스 언어상호작용 분석의 주된 초점은 수업형태를 교사가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지시적 경향의 수업과 교사가 학생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취하는 비지시적 경향의 수업을 구분하여, 교사로 하여금 비지시적 수업을 실천케 하는데 있다. 지시적 경향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제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지시적 경향의 수업은 학생 중심으로 허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업에 보다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수업이다. 분석 대상 수업의 지시적, 비지시적 경향과 함께 그러한 경향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대상 수업 각각의 지수(비율)와 평균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자기수업의 특징을 분석하는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판단 근거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 대상 수업은 전체적으로 교사중심의 지시적 경향의 수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지시비가 50% 이상일 때, 비지시적인 교사이거나 비지시적인 경향의 수업으로 판단하는데 이들 수업의 평균 비지시비는

35.93%로 나타났다. 비지시적 발언비는 교사가 학생을 칭찬, 격려하는 등 수업을 민주적이고 허용적으로 이끌어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과학 1년차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범, 2007, 27)에서는 비지시비가 약 15% 정도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우수 수업을 분석한 연구(백제은, 2009, 58)에서는 41.32%로 나타났다. 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지시적 수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 동영상 녹화, 수업전사, AF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관찰과 반성적 실천

사회과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관찰하면서 충격도 받고, 동료들의 수업평가로 실망도 했지만, 자기 수업을 전사하면서 교사의 수업언어는 물론 학생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제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AF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찰과 반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당시에는 자신 있게 수업을 했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 말이나 오개념을 말하고 있었다. 분명히 교과 지식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 수업전사를 하면서 무의식적인 나의 언어 습관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문장)도 많았다. 나름대로 준비한 수업이었지만, 전사된 내용은 준비가 안 된 수업이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수업실습3)

“수업전사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계량적 수치분석을 통해 재차 낱말이 인식할 수 있었다. 동영상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강습을 받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하니 어렵다. 교사의 수업은 모범답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범답안에 근사하려면 수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수업실습6)

“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막연하게 내 수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항목별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내 수업을 분석하면서 앞으로는 진도에 급급한 수업보다는 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나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실습1)

‘상황 속에서 협력적인 문제 분석과 해결’이라는 말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실행연구에 대한 간결한 묘사이다. 수업에 대한 연구는 관찰과 설명을 통해서 특정 교육활동을 일반화시킬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특정 상황과 특정 집단에 국한된다는 것이다(Portman, 2007).

예비교사의 수업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행연구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당면할 수 있는 교실 상황과 어려움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대상 예비교사들은 사회과 교실 수업의 실제 상황에서 머릿속 이론적 지식을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실제 맥락에서 스스로

체계적으로 관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각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반성적 실천의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 역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수업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가 언어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수업의 형태적 의미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수업행동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언어 행위를 중심으로 반성하고 실천하는 자기장학의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로서의 존재는 항상 자신의 수업이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교사로서의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수업의 맥락은 그 자체로 주체로서의 교사를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때문에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교실 수업의 맥락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수업의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경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수업 기술을 동시에 연마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기수업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